

중국증시 폭락에 대처하는 방법

중국증시가 폭락하며 패닉상태에 빠지자 세계 증권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6 월 최고점을 찍은 후 추락을 거듭하다가 중국정부의 긴급조치로 반등에 겨우 성공한 모습이다.



잘나가던 중국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13 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증감위)가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이후부터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국이 신용거래에 손을 대는 게 증시 과열을 입증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투매가 이어졌다.

당황한 당국은 다시 신용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거래 수수료 30% 인하, 최대 6000 억 위안(약 109 조원)의 양로보험기금 증시 투입, 공매도 거래 제한, 인민은행의 증권금융공사 지원 의사 표명, 기업공개 일정 연기 등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2008 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조치까지 발표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9 일 리 총리 주재 국무원 회의에서 "각급 재정(기관)은 비효율적 사용이나 규정 위반으로 회수된 자금 2500 억여 위안(약 45 조 6000 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증시부양책 내용	
기관명	내용
재정부	보유 금융기관 지분 매각불허
인민은행	주식매수세 늘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은감위	주식담보대출 기한연장
보감위	보험사 주식매입 한도 확대
증감위	상장사 대주주 지분매각 불허
국자위	국유기업 자사주 매각불허
선물거래소	선물거래 보증금 비율 확대
증권금융공사	증권사에 신용공여 확대

*자료: 각 기관

중국당국의 이러한 부양책에 힘입어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8% 상승한 3709.33 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2009 년 이후 6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것이다. 선전종합지수도 4.25% 오른 11510.34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중국정부가 대규모 증시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록적 폭락세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개혁개방 이후 30 여년 동안 연평균 9.7%가량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느리지만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뉴노멀(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도래를 공식 선포했다.

이를 위해 주시시장을 띄워 소비를 촉진시키고, 주식시장을 효과적인 자금 공급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따라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리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로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었고 지난 4 월 '1 인 1 계좌'의 족쇄를 풀어 개인이 20 개까지 계좌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활성화 했다.

또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그리고 홍콩과 상하이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통을 시행하며 외국자본을 유입해 투자확대를 꾀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시장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단기적인 폭락을 가져왔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주가 3500~4000 선 이상은 거품"이라며 "현재 상황은 과도한 주가

끌어올리기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증시도 최근 중국증시 급락에 따른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증시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증시에 대한 글로벌투자은행(IB)들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선진국의 낮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외환변동성, 신흥국증시에 대한 저평가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중국증시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단기간의 과열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전히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중국의 중산층 만들기 정책과 장기발전을 위해 1,000 만명이 살 수 있는 서울규모의 도시를 40 개 건설해 내수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증시는 2030 년이 되면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시장은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자금들이 신흥국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되는 자금의 절반가량이 중국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다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증시의 폭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필자에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되지도 않았다. 2 보전진을 위한 1 보후퇴를 전쟁의 패배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중국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되 **성장과정에서 단기적인 진통에 대비해 투자기간을 5 년이상으로 길게 잡아 조정기를 기화로 삼는 인내심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직접투자보다는 펀드의 형태로**

매월 분산하여 투자하는 적립식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망한 투자시장인 중국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다.



[증시조정에 따라 오히려 늘어나는 펀드설정액 : 애플엔가이드]